

‘대투수’ 양현종, 도전 택하다

텍사스와 스플릿 계약
미국 진출 첫 산 넘어
비자문제 협의되면
스프링캠프에 합류



‘꿈’을 택한 양현종(33)이 에이스 타이틀도 내려놓고, 도전자로 돌아간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KBO 리그 기아 타이거즈 대 엘지 트윈스 경기, 엘지 공격 1회 말 기아 선발투수 양현종이 역투하고 있는 모습이다.

‘꿈’을 택한 양현종(33)이 에이스 타이틀도 내려놓고, 도전자로 돌아간다. 2007년 2차 1라운드 1순위로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양현종은 에이스 자리가 익숙하다. 2009년 12승(5패)을 올리며 처음으로 두 자릿 수 승리를 쌓은 양현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0승을 달성했다. 2017년에는 20승(6패)을 수확하며 KBO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통산 성적은 425경기 147승95패9홀드 평균자책점 3.88. KBO리그 역대 다승 4위, 현역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은 승리를 올린 투수다. ‘대투수’라는 별명도 그를 따라다녔다. 그런 그에게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이 마음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양현종은 2014시즌 뒤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받자 한국 잔류를 택했다. 그러나 미련은 거두지 못했다. 결국 양현종은 2020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자 다시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상황은 2014년에 비해 나아질 게 없었다. 양현종은 2020년 11승10패 평균자책점 4.70으로 이전보다 부진한 성적을 냈다. 이십대 중반이던 그의 나이도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큰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겹쳤다. 그러나 양현종은 꿈을 접지 않았다. 원소속팀인 KIA와 협상도 잡고 미국 진출에 집중했다. 선발 보장, 마이너리그 거부권 등 조건도 모두 포기했다. 오로지 도전을 향한 의지만 다졌다.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왔다. 양현종은 13일(한국시간) 텍사스 레인저스와 스플릿 계약을 맺었다. 스플릿 계약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소속에 따라 조건을 달리한다. 메이저리그 승격 시 양현종은 130만 달러를 받고, 인센티브 55만 달러 등 최대 185만 달러를 수령한다. 보장된 건 없다. 안정적인 자리와 익숙한 환경, 보장된 연

봉 등도 모두 내려놓고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한 생존 경쟁을 치른다. 당장 초창 선수 신분으로 참가하게 되는 스프링 트레이닝부터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텍사스의 선발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양현종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광주에서 훈련 중인 그는 비자문제가 협의되면 미국으로 건너가 팀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계획이다. /뉴시스



원윤종, 김진수, 이경민, 정현우로 이뤄진 한국 남자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2021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SF)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봅슬레이 4인승 경기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봅슬레이 4인승팀, 세계선수권 1~2차 시기 8위

합계 1분49초40 기록

원윤종(36·강원도청)이 조종간을 잡은 한국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1~2차 시기에서 8위에 올랐다. 파울렛 석영진(강원도청)과 브레이크맨 이선우, 채병도, 김동현이 호흡을 맞춘 팀 석영진은 1분50초60으로 22위에 머물렀다. 여자 모노봅(봅슬레이 1인승)에 나선 김유란(강원도청)은 1·2차 시기 합계 2분02초55를 기록해 14위에 올랐다. 세계선수권대회 봅슬레이 경기는 1~4차 시기 기록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한다. 남자 봅슬레이 4인승 3~4차 시기는 14일 오후 11시 시작된다. /뉴시스

였다. 1차 시기에 54초65의 기록으로 11위에 그쳤던 팀 원윤종은 2차 시기에 7위에 해당하는 54초75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렸다. 파울렛 석영진(강원도청)과 브레이크맨 이선우, 채병도, 김동현이 호흡을 맞춘 팀 석영진은 1분50초60으로 22위에 머물렀다. 여자 모노봅(봅슬레이 1인승)에 나선 김유란(강원도청)은 1·2차 시기 합계 2분02초55를 기록해 14위에 올랐다. 세계선수권대회 봅슬레이 경기는 1~4차 시기 기록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한다. 남자 봅슬레이 4인승 3~4차 시기는 14일 오후 11시 시작된다. /뉴시스

‘학폭 인정’ 송명근 “모든 분들께 죄송”

남자 프로배구 학폭 의혹 관련 SNS에 반성문 올려… 잔여시즌 포기

OK금융그룹의 송명근(28)이 ‘학폭폭력’을 시인하며 이번 시즌 출전을 포기했다. 송명근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성문을 올렸다. 지난 13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현직 남자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고등학교 시절 노래를 부르려는 선배의 말을 거절하다 폭행을 당했고, 응급실에 실려 가 고환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발로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진 선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송명근으로 지목됐고, 송명근은 곧바로 자신이 가해자라고 인정했다. 송명근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남은 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명근은 “청소년 시절 저의 용서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께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전부 시인합니다. 저는 학폭폭력 가해자가 맞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맞습니

다. 그 어떠한 변명도 해명도 할 것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송명근은 “제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신체의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님을 직접 만나 뵈고 진정어린 사과를 드리고 싶는데 그러다그 해서 이미 가해진 폭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깊은 상처가 아무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에는 저 스스로도 제가 가한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느끼는 민망의 죄송한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당연히 피해자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을 것이고, 저의 사과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기에 다시 한번 연락드려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고 전했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